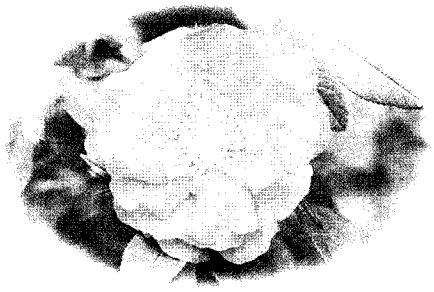
조경수목 산책 43

해당화(II)

임경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농학박사



해당화의 생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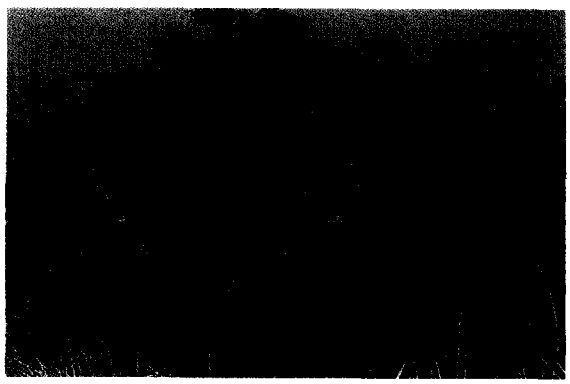
해당화는 장미과의 장미속이 식물로 찔레나 장미와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사이에 있다. 몇 번인가 지적한 바 있지만 바닷가 모래땅을 찾아서 잘 난다. 필자가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해바다 북쪽에 있는 백령도의 해안 모래땅의 해당화 밭이었다. 이제까지 이보다 더 넓은 해당화밭을 본 적이 없다. 그곳의 해당화는 하나의 장관이었다.

이곳 사진에 보이는 것도 백령도의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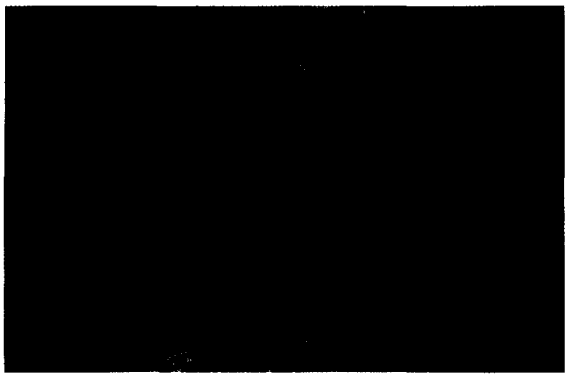
해당화는 땅속줄기를 뻗어가면서 그 점유지를 넓혀 나간다. 그래서 집단(군락)을 만드는 일이 많다. 줄기는 모여나서 많은 가지를 만든다. 높이는 1~1.5m 쯤으로 된다. 가지에는 짧고 부드러운 털과 깊이 2~9mm의 가시가 많고 가시에도 짧은 털이 빽빽히 난다. 잎은 기수우상복엽(奇數羽狀複葉)으로 어긋나게 달린다. 작은 잎(小葉)은 길이 2~3cm, 넓이 1~2cm의 타원형 또는 달걀모양의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잎 표면에는 주름이 져 있다. 탁엽(托葉)은 크고 복엽대궁의 아랫쪽에서 합쳐진다.

6~8월 가지 끝에 직경 6~8cm의 큰 붉은 꽃을 하나 둘 셋 정도로 단다. 꽃잎은 다섯 개이고 넓은 심장형이다. 수술은 노랑색이고 그 수가 많다. 암술대궁(花柱)에는 털이 있고 꽃통에서 약간 밖으로 나온다. 꽃통은

▲ 아름다운 해당화 백령도(1998. 5.14)



▲ 해당화 밭 백령도 연화리(1998. 5.14)



▲ 겹해당화 연화리(1998. 5.14)

▲ 해당화 연화리 포구(1998. 5)

▲ 해당화, 스위스에서

▲ 풍만한 해당화꽃 연화리(1998.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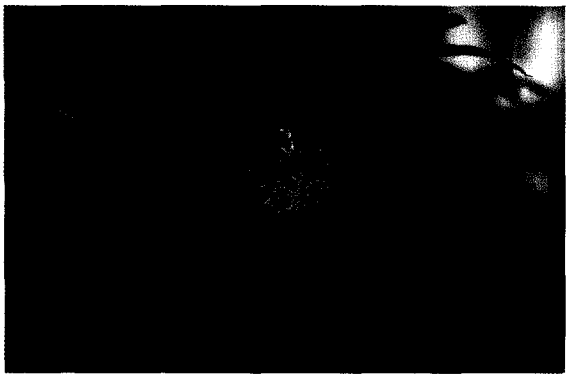
거의 둥근편이고 털은 없다. 꽃받침조각(萼片)은 다섯개이고 끝쪽이 가늘어지고 잎모양으로 되며 가장자리와 안쪽에 짧고 부드러운 털이 있다. 열매는 2~3cm의 둥근모양이고, 8~9월에 붉게 익고 먹을 수 있다. 꽃은 향수의 원료로 되고 꽃의 향기가 강하다. 뿌리와 줄기 껍질은 염료로 이용된다. 꽃색이 흰 흰꽃해당화가 있고 겹꽃해당화도 있다. 해당화는 정원수, 분재 등 꽃나무로 심어진다.

분포지는 우리나라, 일본, 사할린, 캄챠카 등이고 추위에 견디는 나무이다. 필자는 소련의 수도 모스코바를 방문하였을 때 호텔의 정원에 심어진 해당화를 보았고 그 때의 사진을 이곳에 보인다. 그때 열매를 하나 따서 먹어 보았더니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신기하게 나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해당화는 줄기와 가지에 날카로운 가시가 많기 때문에 해당화밭에 발을 옮겨 놓다가는 큰일난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가시상처에 봉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해당화 꽃밭은 바라보기만 해야지 접근해서는 안된다. 무릇 아름다운 것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좋다. 가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가시로 무장한 해당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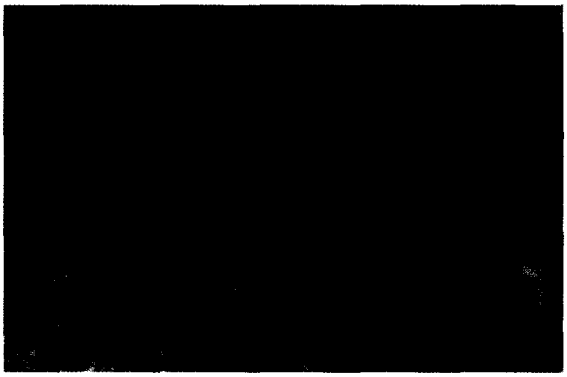
필자는 이미 나무백과(3)(일지사 간행)에서 해당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한 일이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보면 매괴(玫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매괴는 해당화에 크게 닮아 있으나 겹꽃이고 줄기의 가시는 적은 편이고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다. 해당화의 학명은 Rosa rugosa이나, 매괴의 학명은 Rosa rugosa var. plena 이다. 매괴는 우리나라, 일본 등으로 전파되기도 했다. 현재 매괴화는 약용으로 하는 일은 적고 꽃에는 로오즈유(rose oil)와 같은 정유를 함유하고 있다. 이 꽃의 봉우리를 따서 중국에서는 홍차의 부향료(향기를 첨가해 주는 원료)로 하는 일이 많다. 매괴화(해당화의 변종)는 흔히 찻집에서 팔고 있다. 또 방향료(芳香料)로서 식품공업에 잘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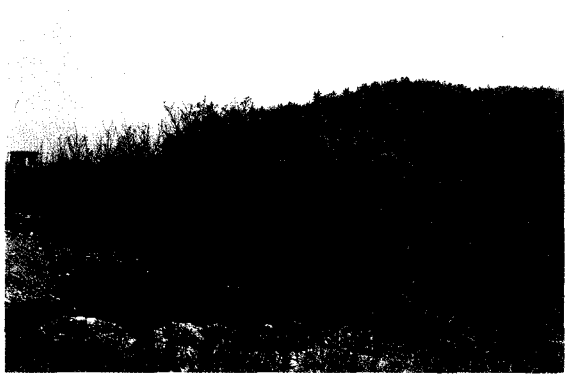


▲ 겹해당화(1998. 5.18)

▲ 해당화 독일 프라이부르크(1988. 9)



▲ 해당화 연화리 포구(1998. 5.14)



▲ 해당화군락 연화리(1998. 5.14)

해당수미족(海棠睡未足)

이 말의 뜻은 잠이 모자라는 또는 잠에 취해 있는 또는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는 여인은 그 아름다움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해당화를 여인에 견주어 말하는 것이다. 해당화 그 자체야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에 견주어 형용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월하미소년의 이야기가 있다. 월하미소년은 우리나라의 고전인 옥루몽(玉樓夢)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남주인공 양창곡(揚昌曲)과 여주인공 강남홍(江南紅)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뽑아간추린 것이다. 이는 실로 흥미진진한 연애소설로서 읽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이곳에서는 그 중에서 해당화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뽑아 본다. 양창곡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두뇌가 명석하고 학문에 능한 미소년인데 서울로 과거를 보러가다가 강남홍이 배석한 사회저명인사의 모임에 참석한다는 데에서 사건이 전개된다. 원문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므로 소개한다.

『양창곡공자(公子)가 흐르는 가을물같은 맑은 두 눈초리로 하나하나 살펴보니(流秋水兩眼 一一審視) 그 중 한 기녀가 쓸쓸히 앉았는데(其中一妓 悄然而坐) 냉담한 기색은(冷淡氣色) 얼음 항아리가 가을 달을 머금은 듯하고(氷壺如含秋月) 총명한 재주와 기질은(聰明才質) 푸른 바다의 맑은 구슬이(滄海明珠) 빛을 숨긴 듯하며(如隱光明) 그것은 흡사(猶) 침향정 위의 해당화가 가물가물 졸고 있는 듯했다.(於沈香亭上 海棠花之睡也)』

이 글은 먼저 강남홍의 미모를 아낌없이 표현하고 그것을 졸고 있는 해당화로 묶어 버리고 있다. 졸고 있는 꽃이라면 오직 해당화라야만 한다는데 묘미가 있다.

또 하나의 해당화시

해당화 모래밭
햇볕에 바래고
바람에 나부끼고
빗물에 씻기어
말다 못해
순수했기에
그곳에는
작소도 없었고
인산도 없었고
칼리도 칼슘도 없었다.
평생을 단식하다시피
살아온 해당화
공기는 숨 좁하고
물은 마시고
햇볕을 쪼개서
모래밭은
찬란하게 빛났다.

이청조(李淸照)의 노래

이청조(1084~?)는 중국 산동성의 사람으로 중국문학사상 최고의 여류작가로 알려져 있다. 학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남편 조명성(趙明誠)과 협력하여서 골동품을 수집하고 연구하였다. 때마침 전쟁이 나자 난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그 사이에 남편은 병사하고 소장하던 고물은 거의가 없어졌다. 나라가 깨어지고 집은 망하고 해서 그 비참함이 그의 시에까지 스며들고 있다. 다음은 해당화가 주제로 된 그녀의 시이다.

작야우소풍취	昨夜雨疎風驟
농수불소잔주	濃睡不消殘酒
시문권렴인	試問卷簾人
각도해당의구	却道海棠依舊
지부	知否
지부	知否
응시록비홍수	應是綠肥紅瘦

어젯밤 성긴 비에 세찬 바람이 불어 깊은 잠으로도 술기운이 그대로 남았다. 대발주렴을 걷어올리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는 오히려 말하기를 해당화꽃은 그대로 피어있습니다라고 했다.

아느냐 모르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마땅히 해당화의 잎은 푸름을 더 했을 것이고 붉은 꽃은 상처를 받았을 것인데

이처럼 그녀는 해당화의 영광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비바람이 닥쳐와서 그것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 슬프다는 대목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취우불종일(驟雨不終日), 즉 세찬 소낙비도 하루 종일은 계속되지 못한다는 말구가 있듯이 힘도 오래가지 못하니 해당화의 꽃은 다시 피어 날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만물은 성(成, 이루어지고), 주(住, 번창하고), 괴(壞, 깨어지고), 공(空, 없어지고)의 길을 돌고 도는 윤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당화도 익히 그것을 알고 있다. 다만 해당화의 사회(집단)는 찬란한 영광으로 충만되어 있으나 무척 어려운 생존환경을 아무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해당화에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아 본다. 우리는 집안뜰 구석에나 마을길 좁은 공지에나 한 두그루의 해당화를 심어 그 신화를 되살려 보고 싶다. 조경수